

동서고금을 방황하는 우연과 인연

《용비어천가》가 이끌어준 《자치통감》의 세계

김기협

사학자

몇해 전 학교를 그만두려니 사람마다 왜 그만두냐고 묻는다. 워낙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이 엇갈린 일이라 똑부러지게 대답할 길도 없어서, 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적당한 말로 얼버무리곤 했다. 그중 많이 써먹은 대답은 대개 함께 역사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책 좀 읽고 싶어서”였다.

아니, 공부한다는 사람이 책 좀 읽고 싶단다! 책임기 좋아하면서 다른 분야로 나간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듯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 직업이면서! 그러나 역사공부하는 친구들은 내 말을 금방 알아듣는다. 역사공부는 책을 ‘보는’ 직업이지, ‘읽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산더미처럼 책이 쌓인 서재에 앉아서도 즐거움을 찾아 책을 읽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필요한 자료를 찾아, 그리고 필요한 대목을 뽑아내기 위해 조바심치며 책을 뒤지는 일이 역사학자의 주업무다.

책읽기에서 죄의식 느끼는 역사공부

심지어는 책읽기에서 즐거움을 얻는 데 죄의식마저 느끼는 것이 역사학자들 사이에 풍속 아닌 풍속이 되니, 원래 책읽기를 어지간히 좋아하는 사람도 이 노릇 몇 해 하다보면 책에 질리게 될 지경이다. 내가 20년간 끌어모아 놓은 책을 봐도 읽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구한 것은 몇 권 되지 않고, 거의 모두가 연구에 ‘필요’한 것을 의무감에서 붙잡아놓은 것들이다. 평생을 가도 내가 차분히 읽어볼 것은 그중 1%나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또 다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책 좀 읽고 싶어서”라는 것이 아주 빈 말이 아니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연구업적을 낼 의무감에 쫓기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내 즐거움을 위해 읽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었다. 공자님의 ‘중심소욕(從心所欲)’을 감히 흉내내지는 못해도, 전문분야의 1차연구에서 벗어나 분방한 독서로 공부의 틀을 한 차례 키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떠난 것이다.

학교를 떠나면서 품은 뜻 가운데는 이뤄가는 것도 있고 그동안 버린 것도

있지만, 책 좀 읽어보려는 뜻 하나는 흡족하게 충족시켜 왔다. 무엇보다 좋은 기회는 중앙일보의 해외 북리뷰를 1년남짓 맡은 일이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북리뷰를 지키고 앉아서 관심 가는 여러 분야의 책들을 두루 구해서는 두 주일에 한 권씩 소화시키는 일. 연구분야의 자료만 좀 살스럽게 따지고들던 일에서 벗어나 온갖 주제의 책들을 다치는 대로 섭렵하려니 마치 온실에서 나와 밀림에 뛰어들듯 느낌이었다.

14개월의 기간 동안 최장간 ‘화제작’을 백 권 가까이 구해 검토하고 그중 삼십여 권에 리뷰를 붙이고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았다. 문학과

《용비어천가》에 발췌된

분량이 제일 많은 자료가

《태조실록》과 《자치통감》이다.

《용비어천가》의 해설을 붙이면서

손댄 《자치통감》은 전에도

꽤 많이 들여다본 책이다. 그러나

강의를 준비하며 의무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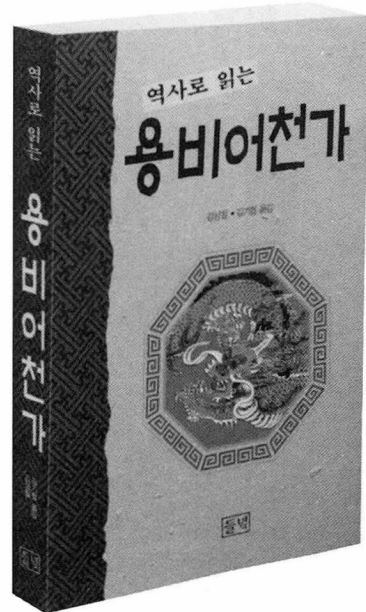
읽던 때와는 전연 다른 맛을

찾아냈고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새삼 깨달았다.

예술쪽은 워낙 자신이 없어 리뷰를 사양했지만, 환경·범죄에서 경영·과학까지 굵직한 주제들을 가리지 않고 섭렵했으니, 책을 통해 세상을 알기로는 갈 데까지 가 본 느낌이다. 탄탄한 학위논문 하나는 준비할 만한 분량은 읽어낸 셈이고, 장학금치고는 아주 특별한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섭렵한 가운데는 환경·과학·국제관계 등 미리 공부를 넓힐 욕심을 가진 분야들도 있었지만, 경영과 범죄같은 분야는 북리뷰를 하면서 새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역사로 읽는 용비어천가
김성철·김기협 옮김
들녘/A5신/464면/12,000원

세종이 훈민정음의 정식 반포에 앞서 시험적으로 만든 《용비어천가》는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한글로 씌어진 최고의 고전으로 꼽힌다. 이 책은 그동안 ‘문학’의 테두리에서만 다뤘던 《용비어천가》를 ‘역사’의 마당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역사학자인 고 김성철 교수(1913~51)가 1948년 번역 간행했던 것을 그의 아들인 역사학자 김기협씨가 다시 고증과 해설을 보완했다. ‘용가’의 형식은 문학작품이나, 그 내용은 왕조건설의 신화를 중국사관의 뼈대로 이뤄낸 것이다. 이 책은 《용비어천가》가 조선개국의 의미파악과 당시 역사관, 세계관을 살필 수 있는 역사자료임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주는 한편 ‘용가’ 전편에 흐르는 ‘사대’가 당시에는 일종의 도덕규범으로 ‘사대주의’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협씨는 오늘의 잣대에서 과거를 재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부자 양대 역사학자의 손으로 고증 해설된 이 책이 있어 오늘의 독자들은 역사의 시렁 위에 얹혀 있던 고전 《용비어천가》를 ‘내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

마약·폭력·경제사범 등 미국사회의 범죄면을 파악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다. 앞으로 미국사와 미국사회를 연결해서 살펴보는 작업을 한다면 현대사회의 여러 병리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시각을 많이 잡아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문명비평의 작업방향

원래 연구하던 분야도 동양학과사와 동서교섭사라서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공부한 편이었고, 과학·철학·종교 등 여러 영역을 살펴왔다. 학교를 떠날 때 마음 한 구석의 욕심은 역사를 비교적 넓게 공부해 온 밑천에 다른 분야의 공부를 적당히 보태면 문명비평이랄까, 좀 새로운 작업방향을 찾아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몇 년 후면 세기가 바뀌고, 또 통일의 과업이 절실하게 다가옴에 따라 문명과 역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부응하는 길을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북리뷰작업은 이 욕심을 현실에 가까이 데려다주었다. 무엇보다 신문칼럼 쓰는 일에 자신감이 붙는 데서 확인되는 변화다. 현대세계의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인지

나름대로 윤곽을 잡게 되니 어떤 사건을 놓고도 독자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가 쉽게 떠오른다. 독자들의 잠재적 관심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연초 북리뷰에서 손을 떼며 나의 책읽기는 또 한차례 단계를 올렸다. 이 단계전환의 열쇠는 몇해 전부터 품고 있던 숙제, 아버지의 《용비어천가》 번역을 증보하는 일이었다. 몇해 전 그분의 일기 유고를 정리해 출간하며(《역사앞에서》(김성철, 1992)) 그분의 유작을 두루 살펴보다 보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 몇가지 중 첫번째로 꼽아놓았던 것이다.

《용비어천가》작업은 지난 달로 꽤 만족스럽게 끝났다. 작업의 내용은 《용비어천가》편찬자들이 발췌해 온 원전을 찾아 고증하고 현대의 독자를 위해 얼마간의 해설을 붙이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원래 책을 내신 1948년까지는 그만한 범위의 원전과 참고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해설을 붙일 경향도 없었던 것 같다.

이 작업 속에서 나는 《자치통감》(資治通鑑) 읽는 일에 많이 빠져들었다. 《용비어천가》에 발췌된 분량이 제일 많은 자료가 《태조실록》과 《자치통감》인데,

타인들과 만나는 문화의 새로운 삶

카를로스 푸엔테스 지음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읽고

송병선 · 번역가

《태조실록》의 경우는 쪽 연결된 이야기라서 한 줄기로 캐내면 되는 것인 반면 《자치통감》에서는 여러 갈래 이야기가 뿔뿔히 나왔기 때문에 더듬어보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다.

같은 책에서 느끼는 새로운 재미

이렇게 손댄 《자치통감》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나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전에도 꽤 많이 들여다본 책이다. 그러나 동양고대사나 중세사 강의를 준비하며 더러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싶은 대목을 뽑아내기 위해 의무감으로 읽던 때와는 전혀 다른 맛을 찾아냈다. 《자치통감》 역시 대부분은 기존 사서(史書)에서 뽑아 모은 내용이거니와, 편찬자가 어떤 뜻으로 어떤 내용을 뽑아 실어놓은 것인지 나는 비로소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책에서 이렇게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니, 학교를 떠나기는 잘 떠난 모양이다.

이런 흥미를 통해 《자치통감》이 동양문명의 전통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도 깨우치게 되었다. 중국문명의 원형(原型)이 송(宋)나라 때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온 사실이다.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과 함께 《자치통감》을 이 원형의 양대축(兩大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하기 시작했다. 역사학과 철학은 과연 고급문명의 양대 핵심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자치통감》에 빠져 살기로 작정했다. 당 태종부터 더듬어볼까, 아니면 한 고조(漢 高祖)부터 시작할까? 재미도 재미겠지만, 그동안 현대문제를 다른 서양책에만 매달려 지낸 만큼 이제 공부의 균형을 잡기에도 썩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읽다보면 그 즐거움과 보람을 다른 독자들에게도 전해줄 만한 책을 한두 권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며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붉게 색이 변한 나무 아래를 거닐면서 한적한 고적지를 둘러보며 사색에 잠기는 것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해준다. 그런데 고적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 나는 우리 선조의 위대함을 찬양하기에 앞서 내가 그 고적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지속성이 있을지를 생각해본다.

현대 세계 소설계를 대표하는 멕시코의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는 과거 문화가 현대와 어떤 지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헤치면서 다원적 관점을 통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다(서성철 옮김).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 기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된 이 책에서 푸엔테스는 문화가치의 재발견이야말로 경제·정치에 위기에 처해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종합적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한다.

원제가 '문혀진 거울'인 이 책은 현실을 반영하고 상상력을 투영하는 거울을 통해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를 다루는 훌륭한 책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300여년간 스페인의 식민통치를 받아온 대륙이다. 이런 피식민지의 문화사를 쓴다는 것은 자칫 국수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다. 그러나 푸엔테스는 스페인 없이는 라틴 아메리카가 존재할 수 없고,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쓴 이 책은 과거 문화가

현대와 어떤 지속성을

지니는가를 다원적으로

보여준다. 스페인 없이는

라틴 아메리카가 존재할 수

없고 라틴 아메리카 없이는

스페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두 대륙의 문화와

역사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송병선씨.

라틴 아메리카 없이는 스페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관점을 통해 두 대륙의 문화와 역사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우선, 푸엔테스는 스페인의 다원적 문화를 구성하는 지중해의 법과 철학의 유산, 그리고 기독교도·유대인·아랍인의 단면을 살펴본 후, 스페인의 신세계를 향한 도전을 서술한다. 그런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유럽인, 아프리카 흑인이 한데 어우러진 라틴 아메리카 속에서 다문화와 다인종의 융합적인 전통의 지속성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면서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마야·아즈텍·잉카 문명을 말한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생각할 때면 외채(Debt), 마약(Drug), 개발(Development), 민주주의(Democracy)라는 4D의 위기에 직면한 대륙임을 떠올린다. 푸엔테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치나 경제에

서의 지속성은 없었는지언정, 문화적 지속성은 이어져내려오고 있음을 발견한다. 또한 다문화로 이루어진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본질적으로 근대성의 조건인 타자와의 만남이 주된 주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즉, 라틴 아메리카는 문명세계의 지각생이었지만, 문화의 세계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파한다.

21세기는 최첨단 문명과 더불어 문화산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단일 문화가 아닌 다원적 문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도 문화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문화전통을 새로운 창조의 원천으로서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과 문화는 고립되면 소멸하지만, 그것은 타인들과의 만남, 즉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우리들은 너무나 단일성과 정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 있으면, 우리들은 재발굴된 정체성의 거울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지금 추구하는 국제화의 초석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까치/A5신/472면/15,000원

